

의정부시 의회소식

제 4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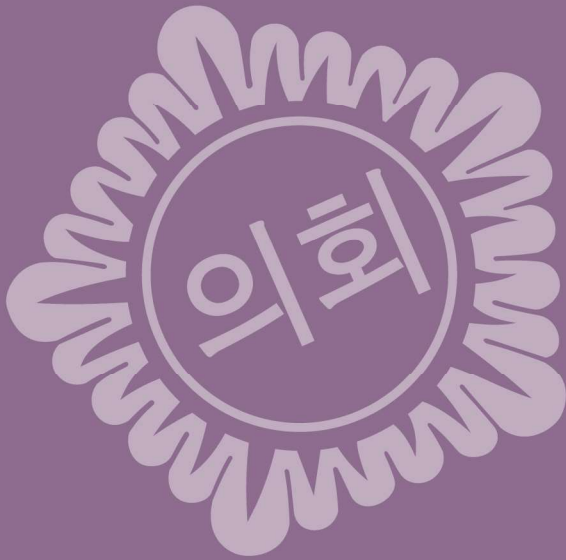
Uijeongbu City Council | vol. 47



행복로 연인상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45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원의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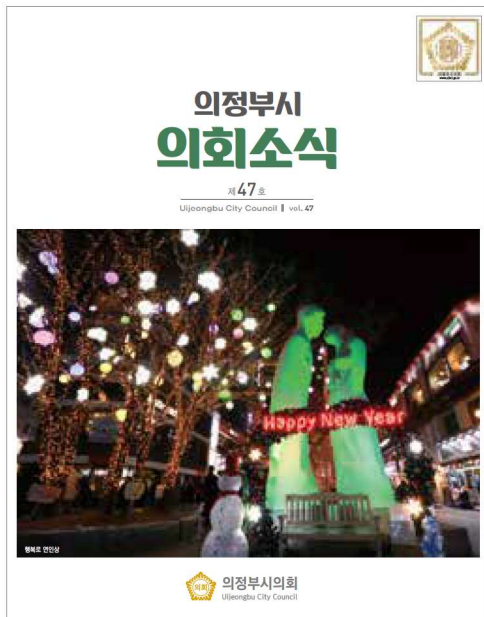
- 우리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윤리도덕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참된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한다.
- 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의정활동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하며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의정부시 의회소식

Uijeongbu City Council | vol. 47



발행인 안지찬 의정부시의회의장
편집인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발행처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제작부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회홍보팀)
발행일 2019. 12.
제작총괄 노정님 의회홍보팀장
취재편집 박지선
사진 박원일
주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42
팩스 031)828-2529
홈페이지 www.ujbcl.go.kr
디자인 한길애드

※ 의정부시 의회소식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회소식)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

30



56

Contents

- 06 발간사
안지찬 의장
- 08 의정부시의회 구성현황
- 14 상임위원회 소식
- 18 안건 처리현황
- 28 의원칼럼
- 30 5분 자유발언
- 56 수상소식
- 59 의정포토
- 65 SNS에서 만나요
- 66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



59



60



63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발간사

2020년 의정부시의회는 민생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로 도약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의장 안지찬입니다.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제7대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해 8월 개원 후 현재까지 4차례의 정례회와 9차례의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및 의원발의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추진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의정부시의회 13명 의원 모두 힘을 합쳐 시민 및 집행부 등의 다양한 의견과 생생한 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민생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에게 인정받는 의정부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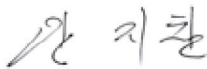
아울러, 의회소식지(제47호)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의정부시의회의 2019년 하반기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을 이해하고, 의정부시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0년 새해 경자년(庚子年)에는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며, 삶이 편안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12월

의정부시의회 의장  올림

선거구별 의원현황

가 선거구

- 의정부1·3동
- 가능동
- 흥선동
- 녹양동



오 범 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 금 석 의원
(자유한국당)

나 선거구

- 의정부2동
- 호원1·2동



김 영 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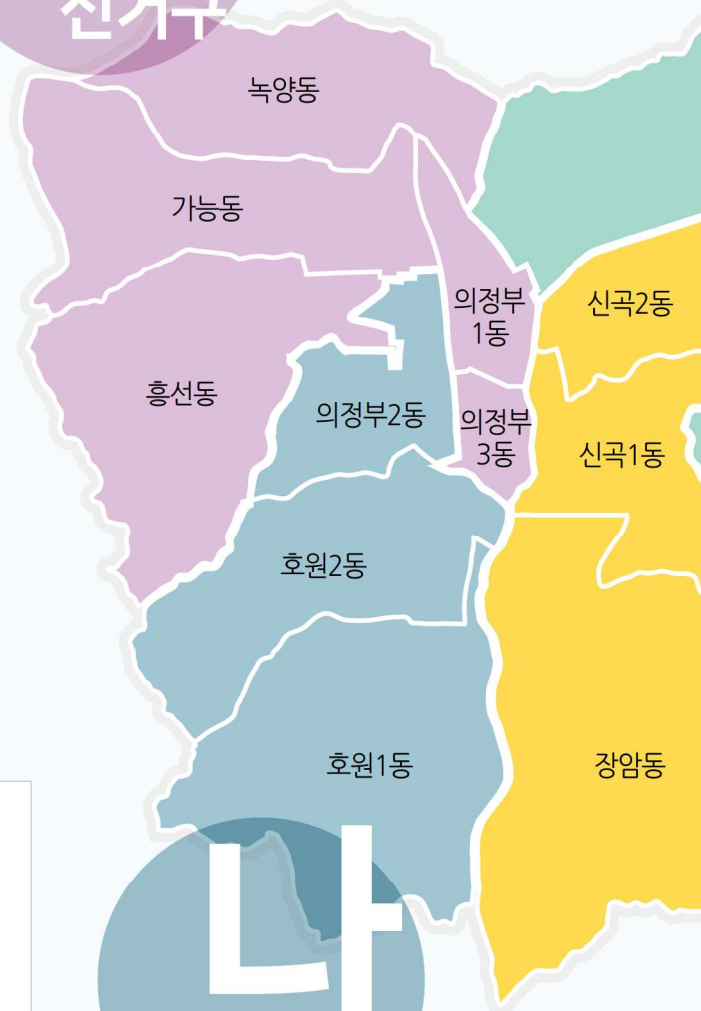
김 정 겹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 구 회 의원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 의정부1·3동
- 가능동
- 흥선동
- 녹양동



나 선거구

- 의정부2동
- 호원1·2동

라 선거구

- 송산1·2동
- 자금동



이 계 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 지 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주 의원
(자유한국당)

라 선거구

- 송산1·2동
- 자금동



다 선거구

- 정임동
- 신곡1·2동



김 연 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 호 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 선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

- 장암동
- 신곡1·2동

비례대표



최 정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 순 자 의원
(자유한국당)

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의 장



안 지 찬 의원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부 의 장



임 호 석 의원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운영위원장



조 금 석 의원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자치행정위원장



김 정 겐 의원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시 · 건설위원장



오 범 구 의원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회기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금석 위원장
가선거구 / 자유한국당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이계옥 부위원장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산1·2동, 자금동)



구구회 위원
나선거구 / 자유한국당
(의정부2동, 호원1·2동)



정선희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박순자 위원
비례대표 / 자유한국당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교육문화국, 동/주민센터,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부시의 예산 및 조직운용 등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김정겸 위원장
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동, 호원1·2동)



박순자 부위원장
비례대표 / 자유한국당



조금석 위원
가선거구 / 자유한국당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김영숙 위원
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연균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최정희 위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도시 · 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수립과 교통 등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오범구 위원장
가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구구회 부위원장
나선거구 / 자유한국당
(의정부2동, 호원1·2동)



임호석 위원
다선거구 / 자유한국당
(장암동, 신곡1·2동)



정선희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김현주 위원
라선거구 / 자유한국당
(송산1·2동, 자금동)



이계옥 위원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산1·2동, 자금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제292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건을 심사 하였다.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였다.

또한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등 9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등 출연금 편성안 10건,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2019년도 제2회 의정부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조례안과,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부시의회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를 구성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다.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를 구성하여 총 규모 1조 4,946억원의 예산을 심사하였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조 4,78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조 1,999억원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주)를 구성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안건처리현황 (2019.6.~2019.12)



|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회기별	유 형 별											시정 질문	5분 발언
	계	조례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	기타		
		제정	개정	폐지									
계	103	16	40	－	3	14	5	1	12	2	10	2	12
제290회	27	2	11	－	－	1	5	－	4	1	3	1	4
제291회	22	2	11	－	1	1	－	－	3	1	3	1	4
제292회	25	5	6	－	－	11	－	－	2	－	1	－	3
제293회	29	7	12	－	2	1	－	1	3	－	3	－	1

| 제출 및 의결 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회기	제 출				의 결				계류	철회	폐기
	계	의원	위원회	시장	계	원안	수정안	의견서 채택			
제290회 ~ 제293회	103	38	3	3	101	96	2	3	—	2	—

I 위원회별 처리현황

제290회 의정부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제1차 정례회기간: 2019. 6. 10. ~ 7. 1. [22일간]

연번	안 건 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하도록 유도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와 합리적인 선진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 (채택)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2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안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능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금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능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금석 의원 등 13명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공동발의 오범구 의원
2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잡 · 다난해지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 운영 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3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4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5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규정한 할인 구매 제도를 현행에 맞게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6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적인 수당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장수수당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백세 장수도사인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00세 생신 축하금 제도”를 신설하고, 경로당 자원사업의 항목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노인장애인과)
7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이 5등급차량(총중량 무관)을 대상으로 시행됨으로써 저공해조치의무 대상을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하여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기 폐차 권고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환경정책과)
8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2018. 10. 2. 시행) 및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2019. 3. 13. 시행)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복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교육청소년과)
9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의정부시 흥선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할 예정(2019년 6월 중)임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관 예정인 의정부시 흥선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과 주소를 추가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교육청소년과)
10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종합감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이 「도서관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수립 시행주체와 불일치하여 이를 삭제하는 한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현행에 맞게 정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도서관정책과)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회계과)
1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시기구인 ‘비전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도래(2019. 8. 31.)함에 따라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효율적 균형적인 도시 개발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균형개발추진단’을 신규 설치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총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임호석 의원
2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지방자치법」제3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의견서채택	의정부시장 (도시재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감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회계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제29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19. 8. 26. ~ 9. 6. [12일 간]

연번	안 건 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발의·제출자 (담당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운영위원회 소관 2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타 조례 개정에 따라 출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대표) 조금석 의원 구구회 의원 정선희 의원 박순자 의원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구구회 의원(대표) 조금석 의원 이계옥 의원 정선희 의원 박순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건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와 국가정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및 지역한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부서별 정원 및 업무를 재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총무과)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팽창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통 별 세대수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통·반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치행정과)
5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자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치행정과)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회계과)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주차관리의 전산화에 따라 수기 발급이 불필요한 주차요금 면제 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회계과)
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형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 포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 포함) 및 납부필증 판매처를 공동주택 내의 관리사무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원순환과)
9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 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의정부”라는 도시 브랜드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명칭을 “의정부 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문화관광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의원 발의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임호석 의원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 및 자목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과 공공청사 신설에 관한 사항임.	의견서 채택	의정부시장 (도시과)
4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수정가결	의정부시장 (공원녹지과)

제29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19. 10. 28. ~ 11. 7. [11일 간]

연번	안 건 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발의·제출자 (담당부서)
운영위원회 소관 1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책연구용역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정선희 의원(대표)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영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 발의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안가결	정선희 의원(대표) 최정희 의원
의원 발의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탁사무에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김정경 의원

의원 발의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대표) 박순자 의원
5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가 의사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증대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공보담당관)
6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정부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공보담당관)
7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2019. 8. 6.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치행정과)
8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의 미준수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보상조치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시민봉사과)
9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세정과)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2011.2.28일자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법정출연금 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세정과)
11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 편성안	기업의 자금 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동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1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13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구도심상권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 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14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15	2020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의 재원으로써 우리 시의 출연금을 편성 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도시농업과)
16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종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신체장애에 대한 판매활동 제약 등을 언급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요소를 완화하고, 우선계약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복지정책과)

17	2020년도 재단법인 의정부 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교육청소년과)
18	2020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교육청소년과)
19	2020년도 재단법인 의정부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재)의정부평생학습원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교육청소년과)
20	2020년도 재단법인 의정부 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문화관광과)

제293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결과

제2차 정례회 기간: 2019.12. 2. ~12.20. [19일 간]

연번	안 건 명	주요내용	의결결과	발의자 (담당부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박순자 의원(대표) 김정겸 의원 조금석 의원 김연균 의원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의원 발의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김연균 의원
3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수정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4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규모의 행정동인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을 통합하고, 대규모의 행정동인 송산2동을 송산2동과 송산3동으로 분리함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권역동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총무과)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정부적 환경정책의 추진 및 확대되는 공원·녹지분야 신규 행정수요에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행정동 통합 및 분리에 따른 부서(동)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총무과)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규모 행정동(의정부1동)의 통합 및 과대동(송산2동)의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관할구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한편,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인구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치행정과)
7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의 수익계약 대부조건 및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건물대부로 산출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회계과)
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회계과)
9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침체된 도심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일자리경제과)
10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법령 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노인장애인과)
11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여성가족과)
1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단계별(2020~2024년)로 인상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원순환과)
1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탁구 강습반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18년 의정부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탁구 강습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자원순환과)
1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9. 4. 29.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문화관광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건				
의원 발의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의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오범구 의원(대표) 임호석 의원
2	의정부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오동 360-4 번지 일원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지구 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에 관한 사항임.	의견서 채택	의정부시장 (도시과)
3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 사업 조례안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2019. 1. 31.)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균형개발과)
4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 사업 조례안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2019. 1. 31.)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균형개발과)
5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본 조례에 명시 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도시재생과)
6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동부보건과)
7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 사항과 감사원의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하수관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보고자 함	원안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2	2020년도 예산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수정가결	의정부시장 (기획예산과)

의정부시 8대 시의회 반환점을 돌며



구구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나선거구 주민 여러분 !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나선거구 3선 시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부시민과 지역구 주민들이 보내 주신 사랑과
지지 속에서 어언 10년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의정부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내년 6월이면
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새로운 8대 하반기 시의회가
2020년 7월이면 개원됩니다.

이에 8대 시의회 반환점을 앞두고 그동안의 미진한 점을
돌이켜 보며 하반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그동안
느낀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8대 시의회는 출발은 정당간의 입장차이로 초대 원
구성부터 힘든 출발을 보였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었습니다. 그 불신을 타개하고 신뢰를 얻고자 더욱
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는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전철
7호선연장 노선변경, 경전철 사업운영자 파산에 따른
운영과 해지지급금 소송, 직동·추동 민자공원 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G & B 사업, 자원회수
시설 내 소각장 현대화 및 이전사업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가 집행절차에
좀 더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에 당초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이었던 노선변경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에도 중앙정부의 타당성검토에 맞지 않다고 기존 노선으로 처리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지방 기초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인 직동과 추동 민자공원의 개장으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민간재원으로 설치된 공원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업자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며 이사업의 득과 실을 잘 살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년 적자사업인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파산하여 우리 시의 큰 재정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자로 하여금 그 운영을 맡겨 운행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고 있으나 기존 사업자가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고하여 진행 중에 있는 실정으로 그 향방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책결정의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공공교통편의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재정적 압박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금오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여 1일 처리용량 220톤 규모로 신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근처 금오동 및 민락지구 시민과 인근 포천과 양주시와 분쟁이 발생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인근 광릉 국립수목원의 4계절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소각시설 이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대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군공여지 개발에 따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나리백시티, 안보테마공원 조성, 전철8호선 연장,

GTX 조기착공 등 수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의정부 시민을 대변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의정부의 주요 시책 중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부대 이전과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도봉산 집단취락 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 노인정 건립, 보건소 이전 건립 등이 있었는데, 이중 기무부대는 이전 중이고 예비군 훈련장 또한 이전 검토 중이며 원도봉산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은 지구단위 계획 들어갔으며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완공하였고 범골노인정과 보건소 이전은 2020년에 건립과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별써 8대 시의회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시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반기 8대 시의회 임기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민의 불편한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용기있게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항상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민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더욱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새로운 8대 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2020년 경자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의원 칼럼



5분 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제290회 본회의 제1차(2019.6.10.)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에 관해」

동영상



자곡동, 송산1,2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처음으로 추진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추진 7년만에 드디어 첫삽을 뜨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산곡동 일대 62만 1천㎡에 총 3천 824억원이 투입돼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문화, 쇼핑, 관광, k-pop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7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고생하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곡동의 80여가구 주민들로 꾸려진 산곡마을 투쟁위원회는 낮은 보상가와 이주대책, 생활대책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지난 5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사업자가 이미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 강제수용 재결권을 시에 주는 이유가 뭐겠냐? 뭔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의심과 적개심이 있다. 우리 사회가 어디서 꼬여서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감정평가 이의 제기도 국토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에게 가능하다. 의정부시장도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 그걸 지금 안하고 있지 않냐? 거기에 20여명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보상 사례를 들어 합류한 것으로 안다. 그걸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이 발언은 대책위의 주민들 모두를 조금이라도 더 보상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장사치나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해야하는 행복도시 의정부 시장의 발언이기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 대기업의 사장님이 하실 법한 대응이었습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의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주)는 단지에 들어설 6개업체가 41%, 의정부시가 34%, 금융권 3곳이 20%, 건설회사가 5%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의정부시가 직접 출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을수 있을거라는 기대, 시의 원활한 행정적 지원으로 더 빠른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가 그것뿐이었을까요. 의정부시가 출자한 34%의 지분은 결국 의정부시민의 지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정부 리듬시티(주)의 매우 특별한 정체성이며 다른 민자투자사업과는 그 격을 달리해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 측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시 세원의 확보와 투자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윤 추구하고 함께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의에 밀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세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대책에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친화적인 사업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다행히 산곡동 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로부터 의정부시에 행정권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의정부시가 이주대책과 보상 등에서 주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고 대책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주차문제 해소와 갈 곳 없는 소규모 영농 가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

후 임시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려와 합의로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끝까지 세세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합문화 융합단지의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

(주)가 이익창출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박수 받는 시행사가 되어 의정부시 발전에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본회의 제2차(2019.9.6.)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동영상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 용량 부족과 내구연한 도래를 이유로 20t이 증설된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자일동 소재 자원순환센터 부지에 이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는 동의하지만 이전으로 결정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주민의 동의없는 강행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으며 충분한 소통없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 또한

집행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우려한대로, 자일동 주민들과 인근 민락2지구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해왔다는 의혹과 민간자본에게 관리, 운영권을 넘겨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하려는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호도하여 주민들의 타당한 항의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자일동에는 이미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을 비롯, 대형 폐기물, 잔재물 적환시설, 재활용품 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2010년 자일동에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더 이상 주민기피시설을 자일동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악취, 해충 피해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선량한 자일동 주민들께서 의정부시의 약속을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한번 양보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자일동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쌓여있는 라돈침대, 연탄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 마을의 부족한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 신설 등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안병용 시장은 언론을 통해 자일동 기피시설 “쏟림현상”에 대해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며 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부족한 도로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 내 놓은 의정부시의 약속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말 뿐이었던 10년 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내놓는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을 자일동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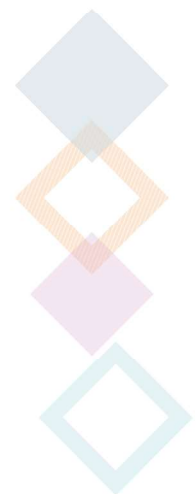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몇 번이나 희생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시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소각장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소수 주민을 만만한 상대로 생각해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가슴 절절한 호소에 감히 반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합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을 포기한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과 민자투자방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모든 의혹과 염려에 대해 낱알이 밝혀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배려와 대책마련으로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의정부시가 공공의 이익만을 앞세워 소수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통의 행정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금석 의원

제290회 본회의 제1차(2019.6.10.)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관련」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 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태”를 보며 느낀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행정, 민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시청 앞에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으로부터 2019년 1월 위촉받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의 120여명의 위원들이 집단사퇴를 선언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입고 있던 유니폼인 조끼와 위촉장을 의정부시에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의정부시의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들의 민낯을 낱알이 내보였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다툼과 고소, 고발이 계속되며, 협의나 타협이 없는 다툼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2001년 운영에 관한 조치가 만들어져 지난 18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체험활동과 관련 캠페인 및 교육사업을 해왔던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집행부의 개입 및 시 주도하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총회가 2월 11일 개최되고 시장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지명하면서 18년 동안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역사와 전통이 훼손당하고 무너졌다고 감히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안병용 의정부

시장님과 의정부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순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 수많은 관변단체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경험이 일천한으로 회자되고 있는 인물 인사를 맡도 안되는 사유와 조례를 들어 임명을 강행한 시장님을 의정부시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신임회장이 시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으시고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협력과 포용이 아닌 조직개편과 자신체제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여강요와 참여하지 않을 시 해촉하겠다는 위협이었고, 급기야 2019년 4월 8일 비대위원회 위원 10명과 전 사무국장 등을 형사고발한 일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의정부시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까요? 민주주의를 배우고 정의와 사회봉사정신과 헌신을 배워야 할 우리 의정부 청소년들은 비민주적인 정치와 행정을 의정부시에서 보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배우게끔 시장님과 해당부서 과·국장님들이 행하고 계심을 자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밀하고 있습니다.

신임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위촉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촉은 지극히 적법한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행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8년 간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체적 회장선출 또는 선관위 구성,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을 해 온 단체입니다.

모든 단체나 회사에는 그 나름대로의 규약과 규범이 있습니다. 이를 정관이라 하며 정관은 법적 보호와 법적 위력과 법적 증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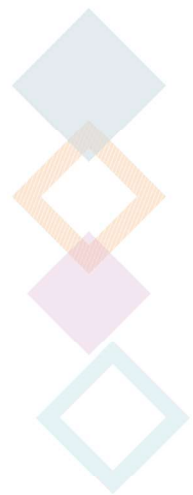
청소년지도협의회 정관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고 협의회장의 자격은 동 위원장의 임기를 3년 이상 역임하고 본 협의회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고 각 동의 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인근 양주, 고양, 남양주,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평택 등 유수의 지자체들이 지도위원 위촉을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기초로 하여 시장님과 해당 실무 국·과장님께 간청드립니다.

의정부시가 관변단체의 운영이나 임원선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관이 순수봉사단체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박순자 의원

제290회 본회의 제2차(2019.7.1.)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심사를 마치며」

동영상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의정부시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심사를 끝내고 결산심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하에 결산감사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하였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김주섭 행정동우회 전국장, 이익재 세무사, 오명화 회계사, 김재유 신용협동조합 상무, 이상 네분의 전문가들께서 수고 하셨고 특히 결산감사를 위한 많은 자료 준비에 이용기 회계과장님 김미자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45만 의정부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짧은 기간에 두꺼운 예산결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가정에도 살림살이의 정도에 따라 엇갈리는 삶의 질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45만 시민들의 삶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잘 집행되길 바라는 염원은 모두가 한결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2018회계연도 총세입과 세출 및 잔액은 총세입결산액이 1조2,241억.1,539만 4,424원이고(1,224,115,394,424) 총세출결산액이 9,298억 6,112만 8,887원이며 (929,

861,128,887) 잔액은 2,942억 5,426만 5,537원 (294,254,265,537)입니다.

최대한 적기적소에 집행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과 관리대책에 각별한 모색이 필요하고 특히 미수납액 이월액의 경우 납세태만 비율이 77.89%로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고질적 체납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징수 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체납 정리 시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체납집행을 강구하며 부득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압류처분 및 결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도 교통법칙금 징수 및 체납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독촉의 독촉을 가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월금의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긴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해 사업이 우려되고,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을 이용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예산을 계산하여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검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만 불용액이 484억 6,500만원(48,465,000,000)으로 이는 예비비 274억 2,500만원(27,425,000,000)이 전년도 86억 8,300만원(8,683,000,000) 대비 187억 4,200만원(18,742,000,000)이 증가한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비비의 걱정선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 역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월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7년도 결산에 이어 2018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700여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와 안지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2018회계연도 결산이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정부시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1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결산검사 심사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8년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2회 본회의 제1차(2019.10.28.)

「의정부시 고속버스터미널 변화와 개선을 촉구한다」

동영상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자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시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의 개선 또는 이전 확장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 있고 10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북부권에 의정부시가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기북부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북부청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제2경찰청, 재난에 대비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교육의 요충 경기제2교육청,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소재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70여 년 동안의 군사도시에서 인구 45만을 자랑하는 도약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여러 곳의 미군부대도 이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꿈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다하고 있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손색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경기북부권 시민들의 가교역할이 되어야 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어쩌면 그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자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열악한 환경의 고속버스터미널을 방치하지 마시고 변화와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전이 되거나 확장이 되든지 터미널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1990년 9월13일자로 지금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종합버스터미널의 일평균 이용차량 대수가 187대이고 일평균 이용객수는 49,92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전한 시점보다 인구는 많아졌지만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고속버스터미널 역할에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더 좋은 환경과 광역고속버스터미널 역할까지 부여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객수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고속버스터미널은 여객들의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복합기능을 함께하는 대중들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광역고속버스터미널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전철역과의 연계성에도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경기북부권의 인구가 2019년 3월 기준으로 340만을 넘었고 올해로 시 승격 56주년이 되는 경기북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교통의 관문이 되어야 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의 열악한 환경과 경기북부권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사통팔달의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금동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고, 버스이용은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요?

터미널주변 전체면적 8천여평 중 현재 사용중인 터미널면적 800여평을 제외한 개인 지주들의 민원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하소연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매우 지저분하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폐자재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도심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버스터미널을 복합기능터미널로 개발하고 동부권 경기북부 고속버스종합터미널을 신설하여 전국 어디나 편리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빌미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설왕설래하는 민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고속버스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며 시외나 지방을 왕래하는 대중교통이기에 경기북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몇 개의 도시를 연결하고 운행 중이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울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이신 8.3.5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의정부고속버스터미널의 변화는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이나 확장이냐를 놓고 또 다른 견해와 심각한 민원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장 이전의 경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라 생각하며, 그 어떤 결정을 하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제2의 소각장 문제처럼 민원 발생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심사숙고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따르는 최소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시민에게 주는 피해도 최소한 줄이면서 사업주들과도 사전에 소통하고 설명회를 통한 문제없는 해결책으로 의정부고속버스터미널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계옥 의원

제290회 본회의 제2차(2019.7.1.)

「고산지구 학교용지 유지요청 관련」

동영상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35년 간 교육자로서 의정부 고산지구 내의 학교 건립 계획이 유보지로 변경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1만 여 가구가 입주하는 곳입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2018년 6월 29일 학교설립시기, 규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결과, 고산동 328번지에 1만 3063㎡ 부지에 200억원을 들여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60여명이 다닐 30학급 규모의 고산중학교 (가칭) 건립을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통과한 (가칭)고산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단계에서 2018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중·고등학교를 함께 건립하라는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2019년 4월 건립 심사 재신청까지,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연기시켰습니다.

고등학교 건립을 심의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서 지리적

으로는 부용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지역 학교로 통학이 어렵습니다.

인근 민락·부용·충의·송양 중학교로 가야하나 이마저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입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서도 무산된다면 이는 교육기본법에 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설계에서 배움, 교육을 먼저 설계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이미 구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교육에 투자를 이렇게 했음을 알 것입니다.

모든 형제를 교육시킬 경제능력이 안되니 형제 중 한명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다른 형제는 경제적인 지원자가 되어 일터로 가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희생을 동반한 아낌없는 과감한 투자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없었더라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 했더라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요?

교육환경에 투자는 아낌없는 투자와 희생은 미래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육은 지식입니다. 앎(지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지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의정부시는 2035년 인구53만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조건의 우선은 내 자녀교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아낌없는 교육투자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의정부시가 교육도시로 정착 된다면, 삶의 동지 선택에 있어서도 의정부시를 우선 선택할 것입니다.

자연히 수요가 많으면 집값도 오릅니다. 그리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내 자녀가 교육 받을 학교가 과밀학급이거나 통학거리가 멀다면, 의정부시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새 자녀 출산 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는 생기는 대로 낳으라고 합니다.

내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통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환경을 마련 해줘야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또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의정부고산지구 내의 좋은 교육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산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교육부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요변경이 불가분 필요시에는 아파트 입주 완료 후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지가 꼭 교육 장소로 유지되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1회 본회의 제1차(2019.8.26.)

「도시녹화사업에 관한 제언」

동영상



사랑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금동 송산1동 2동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민에게 녹색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정부 시민 누구나 그린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추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수목 선정에 함께 하고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The GB City 프로젝트

개요 - 단체, 학교, 아파트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한다.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도시녹화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며,

교육지원청 대응지원사업 조정 및 확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조정 및 확대사업.

2.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

개요-공동체 의식을 회복,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참여,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구도심 쇠퇴지역의 도시기능, 마을의 도시미관과 문제 해결 과정에 주민의 주도적인 제안 및 참여, 무단 투기 취약지역 환경정화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먼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서는 2013년 옥상녹화 우수건축물을 권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2019년 9월부터 390억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도로나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과 유흥지나 자투리 공간에 꽃길을 만드는 사업, 공원 유지 관리 사업 등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꿈꾸던 의정부시만의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특성이 담긴 랜드마크 관문경관을 조성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응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접 시와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진 사업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지역브랜드 구축을 위한 테마선정, 계절별 적합한 식재, 수목 선정 및 다채로우면서도 통일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식재 수목 선정에 관하여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한 무궁화 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리고자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무궁화 꽃은 우리민족의 수난과 함께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거짓소문을 퍼트려 무궁화를 심지 못하도록 하였고 무궁화 꽃을 보고 있으면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병이 생긴다는 헛소문을 내어 우리민족으로부터 무궁화를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학교와 관공서에 있는 무궁화 꽃을 뽑아 없앴으며 진드기가 많은 지저분한 나무라고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여 화장실 근처에 심는 하찮은 나무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시기에 빼앗겼던 우리나라 무궁화를 많이 심어 자긍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무궁화 꽃을 심어서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무궁화 꽃과 언제나 눈맞춤이라도 하면 애뜻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염원입니다.

현재 민락 2지구에 무궁화가 눈에 띕니다. 오목근린공원에도 무궁화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꽃이라고 알리기에는 많이 빈약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무궁화 꽃을 많이 심어 애국정신을 고양해 나가야 합니다.

무궁화 꽃은 참 애뜻한 꽃이라고도 합니다.

무궁화 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군자의 기상을 나타내는 으뜸인 꽃으로, 서양에서도 그들의 이상인 샤론의 장미로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을 많이 심읍시다.

다음은 개선과 관리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청결하고 깔끔하고 더 푸른 더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도시 의정부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미세먼지가 감소되고 건강도 지켜주는 살기 좋은 의정부! 교통과 교육과 행정의 중심도시로 큰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동영상



사랑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산1·2동, 자금동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통해 자가치유능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많은 환경학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중압감은 서로 달라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결코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오염저감시키는 주체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식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함께해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소각장은 반대하지만 나의 쓰레기량을 줄이는 데에는 얼마나 실천하였는가를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일일 처리용량 200톤으로 준공되어 현재 18년 이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 15년 이상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발열량 반입에

따라 현재는 170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용량의 폐기물은, 현재 그 용량을 넘어서서, 일부 가연성 폐기물을 외부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 진단에서 향후 5년 정도 수명 연장이 가능하나,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장래 인구에 대비한 최소한 220톤 이상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협소로 소규모용량 추가 설치에 따른 이원화 운영과 적환장 설치·운영 등 비효율적인 면이 검토되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로 이전 증설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소통으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인근주민들은 그간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선별장, 음식물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먼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아 소외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부터 1.2km 밖에 떨어진 민락2지구주민과 인접지자체인 포천시와 양주시에서도 자원회수시설 이전증설 운영에 따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양주 포천시 등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자체 자원회수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사례가 없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술진단에서 사용수명 연장 기한을 2021년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소각장 설치는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종량제가 실시되며,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허리에 꿰어 쓰지는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필요한 것은 시민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갈등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시민과 집행부 간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숙의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하여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안을 살펴보고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신뢰를 회복하는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증설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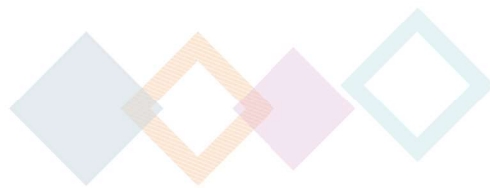
시민과 집행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합의점을 찾는 도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 때 고산동에 광역 고속터미널의 역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추진을 염원합니다.

우리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추석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영숙 의원

제292회 본회의 제1차(2019.10.28.)

「가로수 관리 및 교체」

동영상



의정부2동, 호원 1,2동 지역구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내용은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05년 말 발표된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는 406만 5천 그루, 총연장거리는 28,878km이며, 수종별로는 벚나무가 25%, 은행나무가 24%, 버즘나무(플라타너스) 8%, 느티나무 7% 순입니다. 전국의 가로수 중 은행나무가 24%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원녹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가로수는 11종 18,332 그루로 이중 은행나무가 7,038 그루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는 520 그루 정도입니다.

이처럼 많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정 된 이유는 우리나라 기후와 토질이 은행나무 성장에 잘 맞고 추위와 더위에 강하며 다른 나무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고 대기오염, 건조, 열에 강해 교통이 번잡한 가로변에서도 잘 생존하며 특히, 산소배출량이 많고 이산화황 흡수 능력이 뛰어나 공기정화 기능이 있으며 여름의 푸른 잎과 가을의 노란 단풍으로 도시 미관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하여 통행하는 시민이나 도시미관에 큰 저해요인으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은행 열매의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곤충이나 새로부터 씨를 보호하는 주황색 과육에 독성물질인 헵탄산, 빌로볼(bilobol)과 은행산(ginkolic acid) 함유되어 밟으면 인분 냄새와 유사한 악취가 나며 이로 인해 도로에 얼룩이 남게 됩니다.

또한 악취와 얼룩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매 액체가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염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많은 시군이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수원시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수종교체를 위한 연차적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예산 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은행나무는 열매떨기 작업과 수집망을 이용 은행 열매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가로수열매 수거 반을 운용해 10월 중 도로의 지뢰라고 불리는 은행열매 제거를 위해 은행 나무 아래 그물막을 설치하여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열매 맺는 암나무에 대한 인공불임제살포와 교체작업을 통해 시가지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고양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은행나무 24구루에 은행열매 수집망을 설치하여 은행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수거합니다.

올해 고양시는 시민의 호응이 높아지면 은행열매 수집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타 시군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편의를

위해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은행나무 암나무를 타 종류의 가로수종으로 교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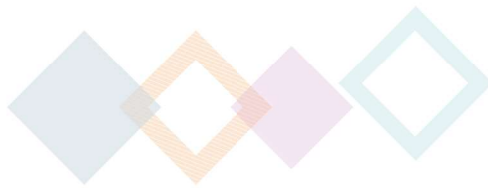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타 시군의 사례처럼 능동적인 대처부분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른 시처럼 은행열매 수집망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반응이 좋을 시에는 전면 실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열매 수거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할지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암나무 교체 시 타종의 가로수로 교체하지 말고 은행나무 수나무로 교체하여 은행나무 거리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가로수 현황 등 자료를 제공해 주신 녹지산림과장을 비롯한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정겸 의원

제292회 본회의 제2차(2019.11.7.)

「서울 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동영상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애쓰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조례를 기획한 기획예산과 과장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침해 및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의정부지법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이 2,118건 접수되었고 고등법원 항소는 500건이며,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895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등법원 항소는 607건이고, 1심 가사 합의부 사건은 267건이 접수되어 고등법원 항소는 62건에 이릅니다.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 3,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총 1,169건으로 항소율은 약 35.6%에 이릅니다. 이는 의정부, 춘천, 인천, 청주, 전주, 제주, 창원, 울산 지방법원 1심합의부 사건 접수 건수 중 인천 4,231건에 이어 3,280건으로 2위이며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1위인 인천 1,419건에 이어 1,169건으로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인천은 서울 고법, 청주는 대전고법, 전주와 제주는 광주 고법, 창원은 부산고법원에 재판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 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경기북부주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몇 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 문산읍과는 약 70km, 연천군에서는 약 90km,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경기북부 북동쪽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약 100km, 가평군에서는 약 75km의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경기북부 주민은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둘째,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183km²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이고, 인구는 약 350만명(전국 4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은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디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1.21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인데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 열거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여러분과 단체 등에서 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정선희 의원

제291회 본회의 제2차(2019.9.6.)

「의정부시만의 브랜드 축제에 관한 제언」

동영상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축제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 예술의 다양한 체험과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산락페스티벌, 수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파주포크페스티벌, 광주팝뮤직페스티벌 등 국내에 지역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최근 운영상의 어려움과 기획의 부실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사라진 축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경쟁하듯이 우후죽순 만들어진 축제가 특화되지 않고 차별화 없는 축제로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축제가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관계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례적인 행사인 랑 어제와 오늘 내일이 같은 축제는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축제가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지, 다시한 번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대중의 호응을 받고 지역시민과 교감하고 문화, 예술의 가치를 알리느냐는 주체자의 기획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지원과 관심일 것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세계적인 관심과 관광의 인프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브랜드화 하는

무한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의 역사적 산물이 후대의 보물이 되어 관광과 접목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형을 통한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무한할 것 입니다.

의정부시도 문화, 예술의 다양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세계적인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높은 예술적 감각과 기획력을 가지고 진행해 온 의정부시 대표 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벌써 18회로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대표공연예술축제 3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이제는 의정부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성인과 가족 중심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기획한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큰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2회 만에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고, 관람객 3만명을 유치하는 등 의정부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축제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음악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블랙뮤직페스티벌”은 힙합, 블루스, 가스펠, 소울, R&B, 재즈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 및 지역적 특성과 공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미군부대, 힙합뮤지션, 비보이 등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한 것 높이고 이를 활용한 예술적 가치와 기대는 행사 그 이상의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8월 9,10일 양일간 개최한 “제2회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총 3개의 블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블록A “BMF stage 메인공연”은 힙합 1세대이자 의정부시 홍보대사

인 타이거JK,윤미래를 중심으로 힙합 아티스트의 무대 공연이 펼쳐졌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모습은 다른 어느 공연보다 무대를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기와 호응 특히 의정부시 청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남녀 노소 누구나 함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록B는 Rookie stage로 의정부의 자랑 퓨전MC 스페셜 무대와 슈퍼루키 블록C는 블록파티 등의 구역분류로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획이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을 통한 참여와 특히 경전철을 활용한 마케팅이 돋보였습니다.

의정부시 경전철을 활성화 하고 홍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평화시대를 맞아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의정부시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관광 진흥 모두를 결합한 다크투어리즘 상품인 “평화열차”를 운영하는 등 기존의 지역행사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획이었습니다.

이외도 프리마켓, 푸드트럭,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다면 관객은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가족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하며 기획에 있어서 블록별 운영은 참신한 아이디어였으나 동선이동, 시간안배, 조명활용을 통한 볼거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중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의정부시 군공여지를 활용한 뮤직캠프 조성 및 행사장소 활용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인력, 예산의 안정화 및 확충을 통해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의정부시의 역사가 담긴 최고의 의정부시 브랜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93회 본회의 제2차(2019.12.5.)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와 현실에 맞는 운영 개선에 관한 제언」

동영상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동 권리(兒童權利)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되어야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와 편익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권리 선언의 기본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에는 이러한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는 민간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제도화한 특성을 가지고 2004년 1월 29일 아동복지법을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내 우선 돌봄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활동, 건전한 놀이와 체험활동 제공, 아동상담, 가족상담 등의 정서지원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 지역 내 아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 종사자 74명, 이용아동 866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참으로 어둠속의 긴 터널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입니다.

의정부시는 근속수당 3만원, 경력5년 미만은 10만원, 이상은 15만원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별도의 예산은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여 센터장, 생활복지사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이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를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도록 변경하고 경력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의정부시 집행부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급식 지원 시 급식종사자 인건비 별도 지원입니다. 경기도 급식비 지원은 1인당 6,000원으로 의정부시는

그 중 20%가 급식종사가 인건비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지원비 사용이 어렵고 급식의 질의 향상을 보장할 수 없으며 2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는 급식종사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부시의 적극 행정을 통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이용 대상자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과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이용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넷째,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는 80% 이상이 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심과 성장의 중요한 시기인 중, 고등학교 학생의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시군의 경우 ‘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연계된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교육을 강조하고 지원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안병용시장께 의정부시 4개권역을 중심으로 ‘시립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안병용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잘 키우고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정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정부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안지찬 의장,

「제1회 (사)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은 지난 1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회 (사)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이연자 협회장)가 주최·주관한 「제1회 의정·행정 대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6명을 심사하여 시상하였다.

안지찬 의장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재까지 4차례의 정례회 및 9차례의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그 밖의 각종 안건 처리,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호석 부의장,

'2019 대한민국 국민대상' 행정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부의장이 10월 17일 국회 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민大賞' 시상식에서 행정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고 국민선거감시단,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大賞'은 국민의 힘으로 올바른 정치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우수한 공로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은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이어 제8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민원 해결 및 현안 발굴, 각종 조례 발의 등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제10회 한국전문인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회장 김창석)가 주최·주관한 「제10회 한국전문인대상」은 올해의 정치·의정·언론·예술·사회공헌 등 각 분야 전문인을 대상으로 전문성·혁신성·참신성·공약 실현 가능성 등 3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우수한 공로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정부시의회 제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등 각종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사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김현주, 최정희 의원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5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과 최정희 의원이 지난 12월 4일 가평군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90차 정례회에서 「제5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제5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식은 지난 1년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10개 분야에서 활동한 우수한 의원 15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김현주 의원은 ‘예산절감분야’, 최정희 의원은 ‘주민참여소통분야’에서 수상을 받았다.



김현주 의원은 2018년 결산안,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어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 서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최정희 의원은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민과 소통 화합하는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되었다.



천보중학교 자유학기제 의회 방문



천보중학교 학생 16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7월 3일 오전 의회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중·고등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천보중학교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안지찬 의장의 인사말과 시의회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홍보영상 시청, 모의의회 체험 후 일일 멘토의원인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과 최정희 의원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

의정부시의회는 8월 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시의회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의정부시의회는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9월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은 이삭의 집, 나눔의 샘 양로원,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 꿈이 있는땅 4곳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하였으며, 입소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꾸준한 위문 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11월 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존중 받고 있습니까?」를 주제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인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식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순향 전문 강사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성폭력은 폭행이 수반되지 않아도 직장 질서 내의 위계에 의해 일어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캐나다 국외 연수

지난 11. 14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20명의 연수단을 구성해서 미국, 캐나다 지역 선진행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공무국 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와 연계한 뉴욕 센트럴파크, 소각장 이전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캐나다 킹스톤 재활용센터, 고령화 사회 대비한 캐나다 해밀턴시 시니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을 중점 벤치마킹 대상으로 방문하였다.



신규 공직자 견학 방문

지난 11월 21일 「2019 의정부시 신규공직자 교육」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신규 임용 공무원 90명이 방문했다.

신규 공무원들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 등을 소개하는 의회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주성 전문위원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사료관 등의 시설을 견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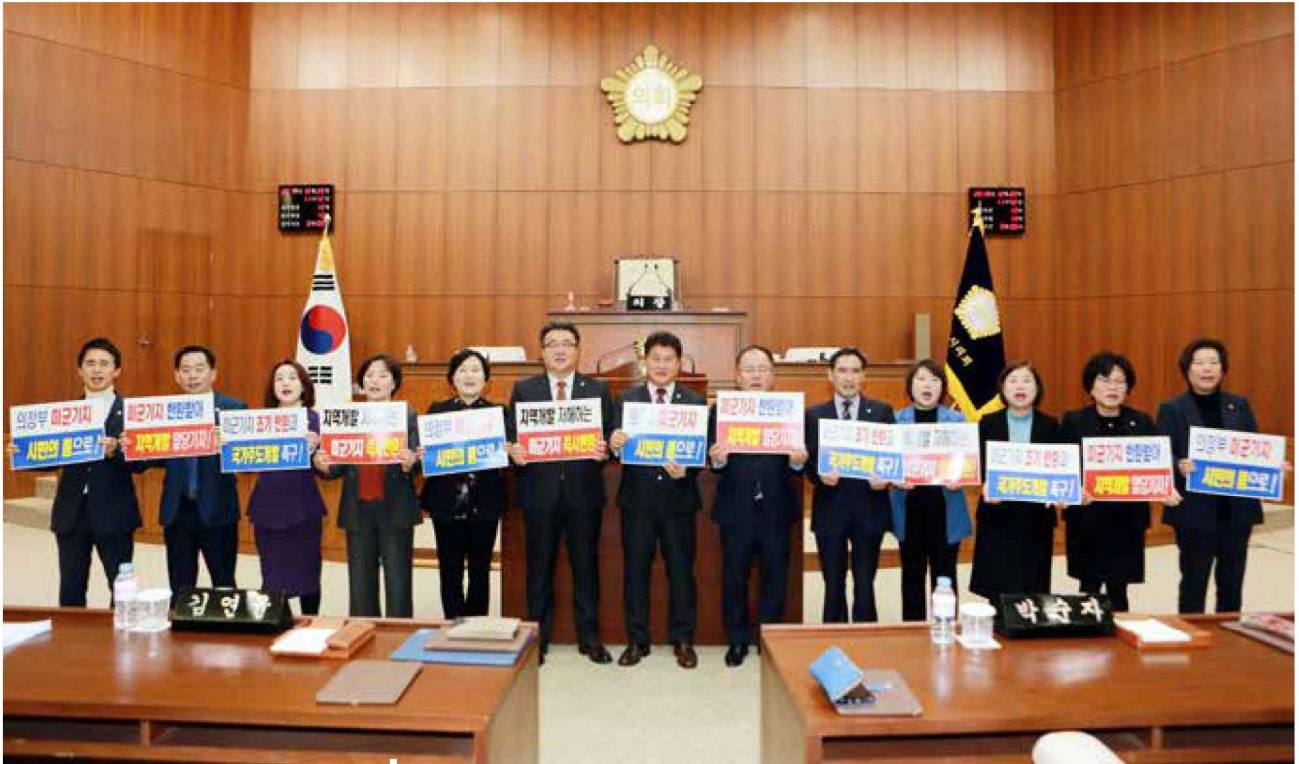
이번 의정부시의회 견학은 신규공직자들의 시정 견문을 넓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직생활 조기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따뜻한 겨울 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소외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2월 17일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의원 및 직원 30여 명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선정받은 총 10가구에 대하여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으며, 신곡동에 소재한 소외가정 3곳은 1가구당 300장씩 총 9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는 지난 12월 2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13명은 지난 12월 11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정부시의 주한미군기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의는 해당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 SNS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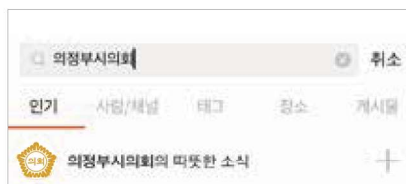
페이스북 친구가 되고 싶다면..



- ① 먼저 '페이스북'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④ 의정부시의회와 페친이 된 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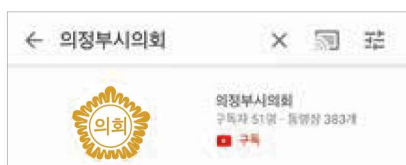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싶다면..



- ①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 터치 플리즈
- ④ 카스친구가 되었으니 방문해 주실꺼죠!!



시의회 동영상이 있나요?
있어요~!!



- ① 먼저 '유튜브'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구독'을 눌러주세요
- ④ 이제 시의회 동영상이 내 손안에 쏙!!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 8회 95일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6회 51일)

연번	회기별	기 간	예 상 부 의 안 건	비고
1	제294회 임시회	2. 10. ~ 2. 17.(8일 간)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8
2	제295회 임시회	3. 9. ~ 3. 19.(11일 간)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19
3	제296회 임시회	4. 20. ~ 4. 27.(8일 간)	• 2020년도 행감 대비 현장방문 • 2020년도 행감 계획서, 증인 채택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임시회: 27
4	제297회 제1차 정례회	6. 8. ~ 6. 30.(23일 간)	• 2019년도 행감 조치결과 보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23 -임시회: 27
5	제298회 임시회	8. 3.(1일 간)	•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회기누계 -정례회: 23 -임시회: 28
6	제299회 임시회	8. 31. ~ 9. 10.(11일 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23 -임시회: 39
7	제300회 임시회	10. 26. ~ 11. 6.(12일 간)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20년도 행감 조치현황 보고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23 -임시회: 51
8	제301회 제2차 정례회	12. 1. ~ 12. 21.(21일 간)	• 2021년도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 및 그 밖의 안건	회기누계 -정례회: 44 -임시회: 51

※주) 연간 주요일정 : 설연휴 [1.24.(금)~1.27.(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수)] 추석연휴 [9.30.(수)~10.2.(금)]

※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 95일 초과 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주) 실제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Uijeongbu City Council



방문·방청안내

문의사항
031-828-2542~4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후 방청일자에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시면 됩니다. 비회기 중에는 의회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사전신청)

청원안내

문의사항
031-828-2532~4

의정부시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국가 기관 모독,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진정안내

문의사항
031-828-2532~4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Open Council, Trusted Council,
Council with Citizens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